

**2020년**  
**사회과학독서토론(푸블리카) 활동 자료집**



**전주해성고등학교**  
JEONJU HAESUNG HIGH SCHOOL



## ◇ 사회과학독서토론(푸블리카) ◇

프로그램의 별칭은 ‘공적인 일, 가치, 장소’를 뜻하는 라틴어 **res publica**에서 비롯되었으며, 2013년 자율동아리로 시작해 현재 교내 범인문사회 교과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1. 목적

동서양의 인문사회 분야의 고전 중에 인간과 사회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는 책을 함께 읽고 토론을 하며 ‘사회과학적 시각’을 훈련합니다.

### 2.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정태석 교수(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과), <행복의 사회학>, <사회학: 비판적 사회읽기(공저)> 저자

### 3. 운영 방법

매학기 1권의 사회과학 도서를 5-6회에 나눠 읽고 토론합니다.

- 정태석 교수님께서 매 학기 앞뒤로 특강(opening lecture 1회, closing lecture 1회(선택))을 통해 주제도서를 이해하는 방향과 맥락에 대해 안내합니다.
- 사회학 전공 대학원생(송다슬, 강의정)이 학생들과 문답을 통해 읽은 내용을 검토하고 요약하며 토론활동을 지도하고 진행자(moderator)로서 학생들과 5-6회 토론모임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평소 소모임을 꾸려 책을 읽고 토론을 준비합니다.
- 주제도서에서 토론주제를 스스로 3개 이상 선정해 찬반 입장을 나눠 진행하며 자신의 탐구 질문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 Key Word

정치, 민주주의, 자유, 소유, 권력, 경제, 노동, 자본주의, 사회, 성(性), 가족, 인(민)권, 종교

◇ ‘푸블리카’가 읽은 책과 토론을 통해 나눈 이야기들 ◇

◆ 2018 주제도서 및 토론 주제

- 1학기: 사회학적 상상력(C.W. Mills)  
[ 교육과 학문에서 통합, 융합, 통섭의 흐름은 바람직한가? ]
- 여름방학: 아픔이 길이 되려면(김승섭)
- 2학기: 자유론(J.S. Mill)  
[ 낙태금지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

◆ 2019 주제도서 및 토론 주제

- 1학기: 시민권(T.H. 마샬, T. 보트모어)  
[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는 합당한가? ]  
[ 외국인에게 정치권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  
[ 우리나라의 복지는 확대되어야 하는가? ]
- 2학기: 다문화교육입문(J. 뱅크스)  
[ 다문화교육을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까? ]  
[ 다문화교육은 소수자를 위한 교육인가? ]  
[ 세계화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가? ]  
[ 남북통일은 당위적이고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일까? ]  
[ 스페인의 카탈루냐지방의 분리와 독립은 정당한가? ]
- 겨울방학: 선량한 차별주의자(김지혜)

◆ 2020 주제도서 및 토론 주제

- 1학기: 에밀(J.J. 루소)  
[ 조기교육은 필요할까? ]  
[ 경험 위주의 교육이 필요할까? 지식 위주의 교육이 바람직할까? ]
- 2학기: 사회계약론(J.J. 루소)  
[ 사유재산은 옳은 것일까? ]  
[ 지배층이 아닌 사람들의 일반의지에 기반한 법의 지배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  
[ 홉스(Hobbs)의 사회계약론과 루소(Rousseau)의 사회계약론 중 무엇이 정당할까? ]  
[ 부르주아들에 의한 혁명은 평민과 노동자의 삶에 도움이 되었을까? ]  
[ 국가가 생기기 전의 인간들은 어떤 상태인가? ]

## 차례

### 2020년 1학기

#### <에밀> Emile or On the Education

저자 소개 1

<에밀>에 대한 소개 2

<에밀>을 읽고 나서 4

토론활동의 기록 10

### 2020년 2학기

#### <사회계약론> On the Social Contract; or, Principles of Political Rights

<사회계약론>에 대한 소개 16

<사회계약론>을 읽고 나서 21

토론활동의 기록 26

## 부록

인문학과 글쓰기 프로그램 42

2020 푸블리카 45



## 2020년 1학기

### <에밀> Emile or On the Education

#### 장 자크 루소 (Jean Jacques Rousseau)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소설가. 1712년 '유럽의 가장 작은 공화국' 제네바의 시계 수리공 집안에서 태어난 루소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칼부림 사건으로 도피한 후부터는 외숙부 밑에서 자랐다. 그는 외사촌과 함께 한 목사의 집에서 라틴어를 비롯한 여러 교육을 받았으나 엄격하고 인위적인 교육 방법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그 후 법원 서기의 필사 수습 사환, 동판 조각사의 견습공 등으로 일했으나 독서열과 상상력을 펼칠 수 없는 나날은 그에게 크나큰 짐이 되었다.

열여섯에 제네바를 떠난 루소는 바랑 부인을 만나게 된다. 바랑 남작부인과 루소의 관계는 마치 모자간의 사랑과 이성간의 사랑이 기묘하게 뒤섞인 것 같았다고 한다. 바랑 부인은 그에게 지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고, 루소는 이때 철학과 문학에 대한 소양을 풍부히 갖추게 된다. 불우한 소년기를 보낸 그는 스물여덟에 가정교사로 일하는 등 사회 활동을 하다가 파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1742년 파리로 나온 그는 디드로가 공동 편집을 진행하던『백과전서』의 여러 항목을 집필하면서 본격적인 저술가로 활동하게 된다. 선되었고 이것이 『학문과 예술론』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사상가로서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그 후 저작에만 몰두하여 『불평등기원론』, 『정치 경제론』, 『신 엘로이즈』등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마흔이 되던 1762년 4월에 자유 실현에 관한『사회계약론』을, 5월에 인간 교육에 관한 사상을 담은『에밀』을 출간했으나, 파리 의회는『에밀』을 압수하는 한편 루소를 체포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스위스로 도피했지만 제네바 당국도『사회계약론』과『에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책을 불태우는 등 적대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1768년에는 1745년 이래 지내온 테레즈 르바쇠르와 정식으로 이혼한 루소는 피해망상에 괴로워하기도 하였다. 1770년 파리로 돌아와 자기 변호를 위한 작품 『루소, 장 자크를 재판하다』를 쓰기도 했다. 주변의 박해로 여러 곳을 떠돌던 그는 지라르맹 후작의 배려로 그의 영지에서 집필 활동을 하다가 집필 중이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을 완성하지 못하고 1788년 생을 마쳤다.

그는 이성 중심의 사상을 허물고 낭만주의의 탄생에 공헌했으며, 자유가 보편적인 동경의 대상이라고 역설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했다. 그의 개혁 사상은 당시 예술에 혁신을 가져왔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혁명에서 그의 자유민권사상은 혁명지도자들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으며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주요 저작으로『학예론』,『인간 불평등 기원론』,『신 엘로이즈』,『음악 사전』,『고백록』,『고독한 산책자의 몽상』등이 있다.

## <에밀>에 대한 소개

루소는 인간을 교육하는 주체로 자연, 인간, 사물의 3자를 들어, 사람의 능력을 내부로부터 발전시키는 것은 자연의 교육이고, 이 교육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교육이며, 우리가 접촉하는 주위의 사물에 대한 경험을 얻는 것은 사물의 교육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교육이 서로 모순될 때에 그릇된 인간이 형성되고, 조화를 이루고 동일한 목적에 집중될 때에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교육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루소는 교육을 소극적인 것으로만 보아, 교육이 적극적으로 사람의 발육에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말한 소극적 교육은 자연성의 내적 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저지하고, 인위적인 영향을 가하는 것을 피하는 교육을 뜻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도덕이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마음이 악이나 옳지 못한 정신에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은 교육방법상 중요한 계기를 이루었다. 즉 그는 자연적인 교육방법을 강조했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생리상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는 반면, 모든 간섭을 자제할 것이며, 운동을 자유롭게 시키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루소가 주장한 교육관의 중요한 원리를 요약하면 첫째, 교육의 목적은 도덕적 자유, 즉 자유와 규율, 의지의 독립성과 사회정의를 양립시킬 수 있는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다. 둘째, 교육은 기존문화재의 전달에 의해 미래의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생활 실천을 통해서 인생의 선과 악에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인간을 형성해야 한다. 셋째, 교육내용의 선택도 지식의 체계에 대신하여 생활의 원리가 중시된다. 즉 수공적(手工的) 작업이 중시되고, 생산활동의 교육적 의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촉구된다. 넷째, 어린이의 성장·발달의 각 단계는 각기 고유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방법은 그 고유한 성격에 맞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 1권

1권에서 루소는 그의 기초적 철학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 아이를 사회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의 개략도를 설명하였다. 그는 유아와 아이의 초기 육체적, 정서적 발달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에밀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자연인과 사회 안에서의 삶과 관련된 것들 간의 모순들을 해결하는 한 방법찾기"를 시도한다. 유명한 도입부는 교육프로젝트와 잘 어울리지 않는 데 다음과 같다. < 만물의 조성자의 손을 떠나야지만 모든 것이 선하고, 사람의 손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타락한다.> 하지만, 루소는 모든 사회가 인간을 만들지, 시민을 만들지를 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제거하는 (denature)하는 것이 필요한 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천성적 본능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그의 작품 사회계약론에서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이 전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루소는 보았지만, 그렇지 않다. 에밀은 고귀한 미개인의 상실을 슬퍼하는 대신에, 어떻게 자연인이 사회안에서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에서 나온 루소의 제안은 아미, 교육개혁가들의 생각을 반복하여 말한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존 로크의 방법이었던 '아이들의 신체를 계절, 기후, 기아, 갈증, 피로와 같은 상황을 견디도록 증진시키는 것'을 중시하였다. 또한, 아기들의 몸을 보자기로 꼭 감싸는 행위(swaddling)의 위험성과 친모가 그들의 아기를 양육하는 잇점을 강조하였다. 루소는 모유 수유를 선호하였는 데, 그것이 친모가 그녀의 아이들을 돌보



도록 만들며, 도덕적으로 그들 자신을 증진시키며, 자연적 감정이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일깨워지며, 그 상태가 재인간화된다고 보았다. 루소 전문가인 피터 지맥은 루소에 대해 ' 그는 의도적으로 그의 독자의 주위를 끌고,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생각을 과장하기 위해 도발적이고, 현란한 어구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 2권

2권에서는 아이가 세상과의 초기 상호작용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루소는 이 시기에 아이는 책으로 부터는 조금 배우고, 오히려, 실물로부터의 상호작용으로 부터 배울 것을 강조하는 데, 그것은 그의 감각을 발전시키고, 그들 안에 있는 유추작업을 유도케 하기 위함이다. 루소는 한 소년이 성공적으로 이 단계에서 교육되는 것을 예로 들어 끝맺고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연날리기에 함께 가서, 아이가 유리창문으로도 연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유추하도록 질문하게끔 한다. 이 방법은 아이가 교육받지 않았지만, 유추를 통하여, 실제 세계를 이해토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 접근 방법은 후에 몬테소리 교육법에 영향을 주었다.

## 3권

3권에서는 거래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루소는 아이가 성별과 나이에 적합하도록, 그의 취향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롤 모델에 의해 수작업을 가르치도록 권하였다.

## 4권

일단 에밀은 육체적으로 강하고, 그의 주변에 있는 세상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도록 배웠으므로, 그는 교육의 마지막 부분인 감정에 대하여 배울 준비가 되었다. "우리는 활동적이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졌다. 감정에 의해 이성을 완전하게 하면서 사람이 완전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에밀은 청소년 때, 바로 루소가 믿었던 복잡한 사람의 감정들, 특히, 연민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루소는 만일 아이가 청소년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생각하는 것을 못 했다가 성장하여 하게 된다면, 그 때서야 세상으로 나가서 사회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다. 사춘기때 열정있는 에밀을 사회에 보냄과 동시에, 가정교사는 그에게 종교를 소개한다. 루소는 아이가 15-16살 때까지 영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 신에 대해 반항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종교의 추상적인 개념을 사춘기 때에는 이해가 불가능하므로, 단순히 암송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말미에서 자연 종교만을 받아들이도록 결론맺고 있다.

## 5권

5권에서 루소는 에밀의 아내가 될 소피의 교육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루소는 소피가 이상적인 여인이며,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에밀>을 읽고 나서

<에밀>에는 장 자크 루소의 아이를 성인이 되기까지의 교육에 대해서 다루며 교육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에밀>은 첫 문장부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한다. 조물주는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했으나 인간의 손길이 닿으면서 모든 것을 타락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루소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문명 등에 물들면 타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상가들 중에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는 사상가도 있고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는다는 사상가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결국 인간이 어떻다는 정확한 답이 없어서 인간의 본성은 어떤 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고 나중에 더 공부해서 내가 인간의 본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연구나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보고 싶다.

루소는 <에밀>에서 생애의 처음 12년 동안은 단지 한 교육자의 지도에 따라 사회와 격리되어 시골에서 키워져야 한다고 했고 아이는 유모차에 앉아 있지도 않고 끈을 달고 걸음마도 배우지 않으며 아이가 만약 재대로 걷지 못하고 넘어져서 멍이나 혹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아이가 스스로 실패를 겪어보면서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한 것인데 나는 이런 말을 읽으면서 약간 의문이 들었다. 어느 정도의 적당한 기간 동안에 사회와 격리되는 것은 동의 하나 12년이란 긴 시간동안이네 사회에 격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사회와 격리되는 것은 너무 길다고 생각했고 5~8살 정도까지만 사회에 격리되어 스스로 이겨내는 법과 자연을 통해 배워야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사회를 겪어서 또래 친구들과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법과 협동해서 어떤 일을 해내는 것들을 오랫동안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와 격리되어 혼자서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들은 쉬울 수 있지만 결코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격리된다면 세상을 나 중심으로 이해하여 남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하는 것들을 배우기에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소의 자연 상태에서 억압 하지 않고 아이가 탐구해보고 싶거나 해보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 많이 대조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릴 때부터 아이를 너무 억압하여 공부위주로 시키며 아이가 스스로 탐구해보고 시도해보는 과정이 아니라 오로지 대학을 가장 큰 목적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고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아이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마치 아이들이 공부라는 억압의 밧줄에 묶여있는 느낌이 든다. 루소는 아이가 꿈꿨던 상태로 있으면 안되며 몸을 뺏어 기지개를 하게 해주고 몸이 이런 밧줄에 묶여있으면 안된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이런 루소가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루소가 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아이가 만족할 만한 정도로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루소는 이렇듯 아이의 지배와 간섭을 최소화하여 인간의 본성을 지키고 자유를 증진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대단한 사상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2학년 유동하

루소가 사회계약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에밀>을 읽기 전에 선생님께 <에밀>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에밀>에서 에밀이 소설의 주인공이고, 에밀의 성장과정을 나누어서 각 연령대에 맞는 교육 방식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에밀의 성장과정을 나누어서 자신의 교육 방식을 서술한 것이 흥미로웠다.

<에밀>은 총 5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로 나누어진다. 루소의 아동 교육의 핵심은 지식보다는 경험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루소는 에밀을 아동기까지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골에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기의 몸을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걸음마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운명을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또 소년기에는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주체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청년기에는 종교와 도덕을 가르치고 성년기에는 이성과 함께 지내는 것을 허용하여 결혼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기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과 시골에서 애를 키워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몇 가지는 동의하지 않는다. 시골에서 키워야 한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도시에서 자란 애들도 착한 애들이 많지만 시골에서 자란 애들은 대부분 다 착한 것 같아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 것들의 이유는 도덕은 아동기 때부터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걸음마에 실패하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격려 해주고 응원해 줘야 한다 생각한다.

<에밀>이란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대부분은 비판적인 생각인 것 같다. 첫째로 <에밀>은, 루소의 아동 교육은 남자아이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책을 읽고 선생님한테 책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충격이었던 것이 루소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성차별주의자(?)이었던 것이다. 루소에게 여자를 교육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며 여자는 교육을 해도 고차원적인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여자는 의존적인 존재라 남자에게 의존해야 하며 여자는 그저 남자를 위한 존재라는 것이 좀 그랬다. 그래도 이 책을 읽고, 선생님과 수업 통하여 잘 이해하게 되었고, 현대 아동 교육에서까지도 이 책의 내용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놀라웠다. 나중에 내가 아이를 키우게 될 때 다시 읽어보고 싶다.

-2학년 최영현

장 자크 루소의 교육학 저서 <에밀>을 읽고, 당대 18세기의 교육환경과 루소가 주장하는 자연관, 교육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지양하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루소는 자연이 선이며 문명을 악이라고 지칭하였고, 인간의 본래 성질은 선하며 평등하지만 사회제도의 악습과 부조리로 인해 타락해간다고 하였다. 이에 사상가로서의 이상을 새로운 인간 이념의 구축과 인간 형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로서 실현하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한편, 이상적인 사회의 건립이나 정치의 실현보다 교육 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에 루소는 인간 형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의 방법으로서 가상의 인물인 에밀을 통해 그의 교육이념을 구축하며, 이 책을 집필하였다. 이러한 루소의 교육이념은 자연의 특성인 선을 문명에서 기인한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미래의 이상적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선한 자질과 시민의식을 고양하는데 있다. 또한 인간교육에 있어 인간의 발달과정에 따라 교육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에밀>을 5부로 나누어 집필하였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다.

책을 넘겨가면서 내가 받아왔던 교육과 미래에 해야 할 교육의 근본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은 무엇일까,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교육이 옳은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앞으로 내가 할 교육이 이 책으로 인해 옳은 길로 향하게 되었다

-2학년 방형석

루소의 교육에 대한 철학을 담은 <에밀>은 아이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눠 그에 따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간다. 출생해서 5살까지의 유아기, 다섯 살에서 열두 살까지의 아동기, 열두 살에서 열다섯 살까지의 소년기, 열다섯 살에서 스무 살까지의 청년기 마지막으로 스무 살에서 결혼까지의 성년기이다.

먼저 유아기에는 아이를 자연을 통해 교육해야 한다고 한다. 자연이 아이를 훈련시키며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아동기에는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부모가 아이에게 모범을 보이며 인간다워져야 한다고 했다. 즉 소극적 교육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소년기에는 스스로 노력하고 관찰하는 적극교육을 해야 하며 청년기에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자연성을 인식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성년기에는 에밀이 소피와 결혼하게 되면서 여자 교육론에 대해 얘기하는데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하되 여성은 현모양처를 만드는 방향으로 교육해야한다고 한다. 사실 청년기와 성년기는 다 읽어보지 못해서 인터넷을 참고했다.

루소하면 생각나는 것은 ‘사회계약론’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자유로우며 일반의지에 따라 행동한다’는 교과서에 나온 내용밖에 알지 못했다. <에밀>을 통해서 루소의 자연을 중시하는 교육철학에 대해 알게 되었다.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나눈다거나 여성을 현모양처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주장처럼 성평등적 사고와 맞지 않고 현대의 일반적인 생각과 분명히 다르지만, 근대의 교육사상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부모님도 어렸을 때 국내 곳곳을 여행 다니며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 주셨는데 자연중심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났던 것 같다. 재미있게 술술 읽히는 책은 전혀 아니지만 교육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학년 최현웅

<에밀>은 "올바른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루소의 대답이다. <에밀>은 루소가 만들어낸 가상의 아이이다. 루소는 자신의 교육 철학을 에밀의 성장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루소는 어린나이에 미리 조기교육을 하는 것보다, 나이에 맞는 교육을 하라고 주장한다. 어린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그저 자연 속에 아이를 그대로 놓아두라고 한다. 어머니는 유모의 역할을, 아버지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이를 키우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많은 경험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이런 교육방식이 이상적이라고 루소는 말하고 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루소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 필요를 느껴 루소가 이 책을 내던 환경에 대해 조사해봤다. 루소가 태어났을 때는 18세기 초, 절대왕권 시대였다. 그 시대에 아이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교육 철학을 주장하는 루소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는 자신의 신념을 담아낸 책인 <에밀>을 발간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루소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이 있다. 바로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라"이다. 자연 속에서 직접 경험하여 학습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경험중심주의 교육을 하라는 루소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나타낸 구절이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의 좋았던 점을 뽑자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유와 예시로 쉽게 표현해 책을 써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부수고, 18세기에 쓰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현대 교육 현실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놀라웠다. 루소가 그 당시의 학문 위주 교육의 단점을 지적한 것이 현대 교육에서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단순 지적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안 해결방안을 자신의 사상을 대입해 조리 있게 제시한 것이 정말 좋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어쩌면 이 책의 중심 주장일 수 있는 '아이는 자연 속에서 스스로 경험을 통해 학습을 이어나가야' 하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아이를 돌봄으로써 어머니의 의무를 다 하고, 아버지는 아이의 교사로서 아버지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 역할을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진다. 과연 루소의 교육법이 현대 사회에서 적용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교육이라 할 수 있을까?

-1학년 이준희

루소의 <에밀>을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현 시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관점인지, 정말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루소의 교육론은 이상적 이였고, 부럽기도 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주장도 있었다. 애초부터 루소란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고아원에 버린 못된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이 교육론을 썼다는 것이 의심스럽지만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양심적 가책이 이런 매력적인 교육가치관을 적립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의 교육방법에 대하여 말해보자. 그는 감각은 이성보다 먼저 발달하므로 감각을 빨리 키우고 대상에 대한 직관과 경험에서 관념의 형성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감각을 훈련하는 것은 단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통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것, 느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감각은 수동적이고 이성은 능동적인데 커가면서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자기 스스로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실생활에서 행동하면서 배우는 것이 그의 교육의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을 하며 아이들을 교육시킨다. 전 세계도 그런 추세이다. 하지만 나는 루소의 자연에서의 경험 중심적 교육이 어느 시점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호기심을 자극하여 직접 사물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을 도와줘야한다고 주장한다. 알고 배우고 싶은 욕구를 자극해서 현재의 관심과 호기심을 이끌어내 만들어야한다.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거부하고 실생활의 원리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했다. 그의 교육론은 현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무식하고 이상적이다. 이런 교육론은 좋지만 실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중세에서 현대로 오며 많은 것이 바뀌니 그의 사상도 구식사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그의 자연에서 경험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에 찬성한다. 단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말이다. 초등학교 전의 시기에는 부모와 함께 밖에 나가서 자연을 배우고 감각을 익히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의 부모님도 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현장학습을 중시하고 야외활동을 많이 나가서 나의 좋은 경험을 쌓게 해 주셨다. 하지만 더 시기가 올라가면 관념, 지식이 주입되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은 아니더라도 책을 읽고 지식을 넣어 주어 학문의 호기심을 유발시켜야 한다. 루소는 어린 시절 책을 읽히는 것은 저주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옳지 못한 말이다. 하지만 과도한 지식을 주입시키면 학습에 대한 재미가 떨어지며 학습의 욕구가 없어지므로 과도한 학습은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공부하는 마음가짐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도 자연에서의 경험 중심적 교육방법은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이번에는 그의 교육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가 살던 중세시대는 여성의 권리가 약했다. 그래서 그런지 루소의 여성교육론은 문제점이 많았다. 지금 여학생들이 읽으면 화날 만 한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에밀>이란 가상의 인물은 ‘소피’란 배우자를 만나고 소피의 성장 과정으로 여성교육을 말하는데 루소는 여성들에 있어서는 그의 근본 교육사상에서의 예외로 취급하고 있다. 여자는 남자를 즐겁게 해주며 순종하고 가사를 알뜰히 정리하는 것이 교육의 근본이라고 주장하였다. 성 차별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다. 또 청년기(16세~20세)를 제2의 탄생이라고 하며 본격적인 지적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한다. 그럼 그 전까지는 경험 중심적이고 감각을 기른다는 말인데 만약 그 시대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60살이라고 잡으면 인생의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의 사상은 꽤 솔깃하고 이상적이다. 그래서 더 부러웠고 현 시대와 비교하며 읽을 수 있었다. 인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자연에서의 경험 중심적 교육론은 인상적이었다.

-1학년 김현준

전에 고전을 읽어본 적이 없었던 나는 <에밀>을 읽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해보았다. <에밀>은 장 자크 루소가 에밀이라는 가상의 소년을 등장시켜 자신의 교육론을 주장하며 이상적인 시민을 교육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한다. 교육론에 관한 토론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책이었고, 현대의 교육론과 이 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명저에서 나오는 생각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루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사전조사를 해보았다. <에밀>은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1부, 즉 신생아부터 유아까지의 교육방식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었다.

루소가 주장한 교육방식은 꽤나 이상적인 교육방식이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교육방식이였다. 터무니없는 소리. 이것이 <에밀>에 대한 첫 느낌이었다. 그저 이상주의자가 펼치는 근거없는 소리만 같았다. 그러나 토론을 하며 다른 사람의 주장도 들어보니, 루소의 주장의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니 색다른 결론이 나왔다. 루소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선함’으로 시작하며 사회에서의 모든 것이 인간을 악하게 한다는 것이다. 루소는 교육을 소극적으로

보았고, 자연의 교육과 인간의 교육 그리고 사물의 교육의 조화. 등등 루소가 주장한 모든 교육론에 대한 것이 사실상 시간이 갈수록 흥미로워졌다. 이뤄질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하여도, 유아기에서의 교육방식은 아이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줘야하고 그 자유를 위해서 자연의 순리에 맞게 자연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점이, 사실상 현대에서의 교육과 앞전에 말했던 대로 완전히 대조되어 나에겐 꿈같은 소리였다. 만약 사람들이 <에밀>에서 나온 교육론을 완전히 받아 들였다면 현대의 사회와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에밀>에서 주장한 교육론이 사실상 우리에게 적합한 교육론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다.

사실상 토론을 진행하면서 <에밀>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한번 <에밀>을 읽고 토론을 했을 때와 두 번 읽었을 때의 <에밀>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에밀>은 내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편은 아니었다.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교육론은 사실상 그 시대에도 금서가 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될 만 큼이나 사회에 매우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도서였다고 한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론과 다르기에, 그리고 사실상 이뤄질 수 없기에, 그러므로 현 시대에서도 이해하기엔 조금 어렵다는 도서라는 것이 <에밀>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루소와 <에밀>에 대해 조사하고, 여러 번 읽으며 루소가 말하고 싶은 교육론에 대한 이해가 점점 나아졌다.

-1학년 현승민

토론활동의 기록



학번	1519	이름	이준희	활동일자	7. 10.
주제도서명	에밀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영유아 시기에 조기교육은 필요한가?				
진영의 입론	조기교육은 필요하다				
주장한 내용/논리	영유아 시기에 조기교육은 필요하다. 영유아 시기에 조기교육을 함으로써 일찍이 재능을 발견할 수 있고,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 특히 예체능 계열에서 그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생리학적으로도 뇌 구조 유연도가 나이가 들었을 때 보다 어릴 때가 더 좋아 뭐든지 쉽게 익힐 수 있다.				
자기평가	토론을 해본 경험이 없어 이번 토론이 어렵기도 했고, 말도 더듬는 등 실수를 많이 하여 많이 아쉬웠으나 선배님들이 토론을 잘 이끌어주셔서 토론을 잘 마칠 수 있었다.				
활동평가	토론을 하는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조기교육에 대해 깊게 조사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학번	1605	이름	김현준	활동일자	7월 10일
주제도서명	에밀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조기교육은 필요하다				
진영의 입론	조기교육은 선행학습이 아닌 적기교육이다.				
주장한 내용/논리	7세 이전에는 뇌 구조의 유연도가 높아지며 측두엽의 발달로 인해 이해력이 높아진다. 우리가 우리말을 배울 때는 백지상태로 태어나 언어사회에 노출되며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울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어렸을 때는 여러 발달이 가장 쉽고 빨리 되는 최적의 시기이다. 즉, 조기교육은 선행학습이 아닌 적기교육이다. 모차르트, 조수미, 손흥민 등의 성공적인 사례들과 같이 빨리 시작하면 더욱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 다익선이다.				
자기평가	자료 조사하는데 찬성 측의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았다.				
활동평가	토론할 때 세부논제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았다. 학생 수준에서 폭넓게 토론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다.				

학번	1625	이름	현승민	활동일자	7. 10.
주제도서명	에밀			저자	J.J. Rousseau
토론주제	영유아에게는 조기교육이 필요한가?				
진영의 입론	조기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주장한 내용/논리	1. 영유아 때의 뇌는 유연하여 창의성이 높아지지만, 그 기간 교과중심의 조기교육을 시행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조기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학습거부 등의 이유로 영유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설문결과가 있음. 3. 조기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비가 매우 비효율적임.				
자기평가	상대방의 조기교육의 정의에 대해 존중하지 못했다. 내가 조사한 조기교육에 대한 의미의 출처를 정확히 언급하지 못했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반박에 제대로 호응하지 못했다.				
활동평가	준비한 자료가 생각 외로 모자랐다. 루소가 주장한 사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학번	2122	이름	최영현	활동일자	7. 10.
주제도서명	에밀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조기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경험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진영의 입론	조기교육이 바람직하다.				
주장한 내용/논리	조기교육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엘리트 교육이다.(ex 조선시대 왕들), 아이가 조기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행복감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시험을 잘 봄으로써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 상황 상 조기교육 및 선행학습은 불가피하고, 조기교육 및 사교육이 많은 동네인 강남, 강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성적이 높다. 영재고 및 특목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조기교육을 해야 유리하다, 무리한 조기교육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조기교육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예체능, 특히 수명이 짧은 체육 분야는 조기교육을 해야 유리하다.				
자기평가	열심히 참여했지만, 너무 여러 가지 쟁점으로 말을 하여 너무 흐지부지한 것 같다.				
활동평가	주제가 조기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활동 중심을 통해 아동기에는 내버려둬야 한다였는데, 활동 중심을 통한 교육도 조기교육으로 보는 찬성 측과 경험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조기교육이 아니라는 반대 측과 쟁점이 달라서 계속 같은 말로 논쟁했던 것이 아쉬웠고, 만약 경험 중심의 교육도 조기교육이라면 반대 측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조기교육이므로 반대 측이 불리하였던 것 같다.				

학번	2206	이름	방형석	활동일자	7.10
주제도서명		에밀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영유아 시기의 조기 교육을 해야 하는가			
진영의 입론		조기 교육은 옳지 않다.			
주장한 내용/논리		또래집단에서의 놀이활동을 통한 정서 발달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유대감 형성이 시작되는 영유아 시기에 조기교육이 선행 될 경우 사회성이 결여 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등 전체적인 아동의 성장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조기교육의 경우 아동에게 있어서 학습의 자율성을 떨어뜨려 추후 학업 성취에 있어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유아기에 받은 조기교육의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자기평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와 예시를 준비하여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는 주장을 펼쳤으나, 토론 주제와 맞지 않는 주장 또한 하였다.			
활동평가		루소의 <에밀>이란 책을 읽고 토론활동을 하면서, 저자의 사상과 그 사상에 기초한 생각들을 알게 되고,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서 더 나은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학번	2223	이름	최현웅	활동일자	7월10일
주제도서명		에밀		저자	장자크 루소
토론주제		조기교육은 필요한가			
진영의 입론		어릴수록 소리의 구분, 뇌의 유연성, 언어습득에 유리하기 때문에 7세 이전에 조기 교육을 통해 학습해야한다, 유아기에 흡수력이 어른의 50배 이상이다.			
주장한 내용/논리		조기교육의 부정적 요인인 학업스트레스, 자율성과 습득력의 부족 등은 무리한 조기교육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적당한 조기교육 한다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체능의 경우 어린 시절에 재능을 발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자기평가		자료조사를 많이 해서 나쁘지 않게 토론한 것 같다.			
활동평가		조기교육이 이슈이다 보니까 자료들도 많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학번	1605	이름	김현준	활동일자	7월 16일
주제도서명		에밀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경험 위주의 교육이 필요한가 지식위주의 교육이 바람직한가			
진영의 입론		경험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주장한 내용/논리		경험중심주의의 교육은 많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가 자발적 활동을 유발하기 쉽다. 실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실제 과제를 다루기 때문에 학생의 흥미를 높이고, 경쟁보다는 협동하는 학습을 통해 배우는 즐거움을 준다. 둘째,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문제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른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의 적응을 위해서는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다. 넷째, 민주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공동과제를 수행하면서 협동성, 책임감, 사회성 등 민주적 태도와 생활방식이 길러진다.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있는 경험 위주의 교육에 찬성한다.			
자기평가		우리나라의 교육과 루소가 주장한 교육의 차이를 느껴볼 수 있었다.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주는 경험 위주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봤으면 어떨까 싶다.			
활동평가		지식 중심의 교육의 자료도 볼 수 있었는데 이 또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주제를 탐구한 후에는 비록 경험 위주의 교육에 찬성했지만 두 주장 모두 좋은 의견이었다고 생각한다.			

학번	1625	이름	현승민	활동일자	7.16.
주제도서명		에밀		저자	J.J. Rousseau
토론주제		지식중심의 교육활동을 해야 하는가? 경험중심의 교육 활동을 해야하는가?			
진영의 입론		경험중심의 교육 활동을 해야 한다.			
주장한 내용/논리		1. 경험 중심의 교육 활동은 사실상 아이들에게 폭 넓은 교육을 할 수 있다. 2. 경험 중심의 교육 활동은 학생들의 흥미나 필요를 토대로 자발적인 활동의 촉진이 가능하다. 3.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사회생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자기평가					
활동평가					

학번	2206	이름	방형석	활동일자	7.16
주제도서명		에밀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지식 중심의 교육과 경험 중심의 교육중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진영의 입론		경험 중심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주장한 내용/논리		지식에 입각한 교육, 이른바 주입식 교육은 효율성이 있으나 각각의 학습자를 고려할 수 없고, 학습에 있어서 큰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 또한 경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아동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게 하여 후에 있을 진로나 입시에 있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평가		전반적인 자료의 준비가 많지 않았고, 토론의 주제가 마치 “답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같은 애매논제이게 때문에 토론의 핵심이 흐려지는 양상이 보였다.			
활동평가		루소의 <에밀>이란 책을 읽고 토론활동을 하면서, 저자의 사상과 그 사상에 기초한 생각들을 알게 되고,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서 더 나은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학번	2223	이름	최현웅	활동일자	7월 16일
주제도서명		에밀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지식 중심의 교육과 경험 중심의 교육중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진영의 입론		경험중심의 교육이 지식중심의 교육보다 좋다.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주장한 내용/논리		지식중심과 경험중심교육 사이에 정보의 질의 차이가 있다. 혼자서 하는 지식습득보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을 고칠 수 있다.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용이하다.			
자기평가		너무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느낌이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답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은 느낌이어서 조금 힘들었다.			
활동평가		반론 내용이 계속 비슷해서 좀 지루했던 것 같다. 2학기 때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인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 2020년 2학기

### <사회계약론> On the Social Contract; or, Principles of Political Rights

장 자크 루소 (Jean Jacques Rousseau)

#### <사회계약론>에 대한 소개

근대 정치사상의 고전으로서 너무나 유명한 "사회계약론"은 "에밀" "인간불평등기원론"과 더불어 루소의 주저이다. 그러나 후대에 미친 영향에서 보면 다른 책은 이 책에 비할 바가 못된다. 또한 루소 그 자신이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정치와 관계되어 있다"(고백록)고 말한 것처럼 정치의 우위를 신조로 했다면 그 정치의 원리를 다루는 이 책은 저자가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계약론"은 루소의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계약론"은 모두 4편으로 구성되어있다. 다음에 편에 따라서 그 요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제1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루소는 "사회계약론" 전편에 흐르는 기본적 방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취급하고 있을 수 있는 법률을 취급하면서, 시민적 질서 속에 합법적이고 확실한 통치상의 규칙이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나는 이 탐구에 있어서 정의와 효용이 분리하지 않도록, 권리가 명하는 것과 이해가 명하는 것을 항상 결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서 루소와 필로조프(거리의 철학자)들과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 필로조프 들의 원리는 즉 효용에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때 사회관계를 지배하는 규범은 현실적인 이해 속에 해소되어 버린다. 이에 대해 루소의 견해는 정의와 권리의 기초지음을 사실문제와는 일단 독립된 것으로 행하고, 그리고 나서 효용과 권리의 시각을 결부시키는 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도가 성공했냐는 별도로 치고, 권리로부터의 시각과 효용으로부터의 시각의 긴장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1편은 사회계약에 대한 원리적 고찰에 충당되고 있고, "사회계약론"의 중심을 이룬다. 이를 잇는 다른 편은 여기에 있어서의 주장의 전개와 귀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도 좋은 것이다. "인간은 자유스러운 것으로서 태어났다. 그런데도 여러 곳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다." 이것이 제1편의 유명한 시작이다.

인간은 자유, 평등한 것으로 태어난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러 곳에서 사회의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고 있다. 왜냐.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루소는 이러한 사실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포기하고, 사실의 합리화의 문제에 답하려고 한다. 그것은 사회적 질서는 결코 자연적인 기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 즉 컨벤션(약속)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정치사회의 설립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그 하나는 권력의 자연적 기원을 구하는 입장이고, 가족을 정치사회의 원형으로 보고, 왕권을 부권으로부터 유추함으로서 기초지으려는 생각(필머, 보쉬에 등)이다. 다른 하나는 권력을 강자의 권리를 가지고서 기초지으려는 생각이다.

전자의 잘못은, 아이를 부친과 결부시키는 것은 아이가 부친을 필요로 하는 동안뿐인 것이고 아이가 독립

하면 이 유대는 없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후자에 대해서 보면, 거기에는 권리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강자의 권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을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혼란된 생각이다. 정치사회는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독립된 관계이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여 사람들이 합법적인 사회를 형성하느냐에 있다. 지배, 피지배의 관계를 설명할 뿐더러 "인민이 그것에 의해서 인민이 되는 행위"로서의 사회계약이 여기서 설명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루소는 전혀 새로운 내용을 가진 사회계약을 제기한다.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는 전사회적, 전도덕적, 전이성적인 자연인의 상태로서의 자연상태의 기술이 행해지고 현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불평등이 이상상태로부터의 이탈의 결과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제시되고 있었다. 사회계약에 대한 가설이 이러한 논점을 근거로 하여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류가 자연상태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그들은 "생존의 방식"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사람은 새로운 힘을 낳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단지 모임으로써 "힘의 총화"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때의 집합은 단순한 결합이어서는 안된다.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갖는 결합이 달성되어야 한다. "공동의 힘을 모두 발휘해서 각 구성원의 인격과 재산을 방위하고 보호하는 결합의 형태를 찾는 것, 그것으로써 각자는 전원과 결부되면서도 자기자신에게만 따르고 그전처럼 자유로울 것." 여기서 인신(人身)과 소유의 보호와 더불어, 자유의 불가침성이 정치사회의 설립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높이 제고되고 있다. 자유 없는 계약은 이해의 조정일 수는 있어도 권리의 기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자격, 인간일 것의 권리, 그리고 의무마저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과제의 해결로서의 사회계약은 "각 구성원을, 그의 모든 권리와 함께 전면 양도하는 것"이고, 표현을 달리 하면 "우리들은 각자 자기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의지의 최고지도 밑에 공동의 것으로서 두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불가분의 부분으로서의 집단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까지의 독립된 개인에 대신하여 하나의 집합적 정신적인 단체가 이루어진다. 이 "공적인 인격"은 공화국 혹은 정치체로 불리우지만 그것의 능동면에서 보면 주권자이다. 구성원은 집합적으로는 인민이고, 주권에 참여하는 것으로서는 시민이고, 법에 복종하는 것으로는 신민이다.

이 계약론은 먼저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선 첫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계약행위가 흠스, 푸펜도르프 등의 복종계약과는 달리 주권자인 인민의 형성행위로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으로서 주권은 일반적으로 인민의 권력으로 명확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둘째로 이 계약에 있어서의 양도가 개인과 그 부수물 전부를 공동체에 맡기는 전면양도라는 점이다. 루소에 의하면 이것은 모든 성원의 공동체에 있어서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정치사회의 평등에 있어서 이 전면양도는 불가결의 것이다. 동시에 그것에 의해서 개인은 전적으로 포섭되게 되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에게 있어서 외면적인 것(로크)이 아니고, 개인은 자기의 존립을 국가 속에서, 국가를 통해서만이 확보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셋째는 성원은 공동체에 대하여 자기를 전면적으로 양도하는 것이지만, 이 공동체는 자기도 포함되는 인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계약은 자기계약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함으로써 이 계약행위에 있어서 각인은 자기가 양도한 것과 등가의 것을 받는 것이 되고, 개인은 자기를 공동체에 전면적으로 의존시키면서도 자기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소유권의 확립 등).

루소는 사회계약에 의한 정치적 국가의 탄생, 또한 인간존재의 전체적인 전환으로 위치짓는다. 본능에서

정의로, 육체의 충동에서 의무로, 욕망에서 권리로와 같이 도덕적 사회적 가치가 인간 속에 생기고, 인간이 참다운 의미에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 전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유인 것이다. 루소는 자유가 곧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회계약은 자유 그 자체도 보다 고차적인 것으로의 의미전환을 시켜버리는 것이다. 계약은, 자기의 힘 이외는 구속할 것이 없는 자연적 자유를 포기 시켜서, 시민적 자유를 대치한다.

시민적 자유는 일반의지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일반의지는 모든 사람의 의지로서, 그리고 나의 의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의지로의 복종은 나의 의지에게의 복종인 것이다. 여기에 참으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의 도덕적 자유=자율이 획득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루소는 시민의 자유 평등을 확보하고서 인민주권의 철저화가 불가결의 조건임을 보여주고, 또한 이 주권개념을 단순히 정치제도의 원리 속에 두지 않고서 인간에 있어서의 도덕적 가치의 원천에 이르도록 높인 것이다.

제2편. 사회계약에 의한 주권의 성립에 이어서 그 주권개념의 보다 엄밀한 규정과, 주권의 기능인 입법의 고찰이 제2편의 내용을 이룬다. 말하자면 주권론, 입법론이 이 편의 과제이다. 주권은 일반의지, 즉 인민의 의지의 행사이다. 우선 이 주권은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반의지는 집합적 존재인 인민의 의지이기에 비로소 일반적인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지를 특별한 개인 혹은 단체에게 양도하여 대표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주권은 또한 분할될 수 없는 것이다. 의지가 분할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면, 일견 주권이 분할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은 주권의 집행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일반주권은 잘못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인민의 결의가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니다. 인민의 결의는 때로 일반의지로부터 구별되는 전체의지(전원의 의지로서 나타나지만 실은 특수의지의 총화에 지나지 않는 의지)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 속에 부분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개인이 자발적, 자율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부분사회(파당)의 존재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상의 주장은 모두가 전체의 이해를 부분의 이해로 대치하는 주권의 남용에 대한 인민주권 측으로부터의 반론이다.

그런데 주권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권의 한계가 정해져야한다. 인간은 시민으로서는 완벽한 국가구성원으로서 자기의 특수이해를 버리고 일반의지에 완전히 복종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가 구별되어야한다. 일반의지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것(공통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속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개인이고, 특수의지를 갖는 사인(私人)으로서의 행위는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권은 모든 것에 대하여 우위를 가지지만 그것이 무제한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주권한계론은 제1편에서의 전면양도로서의 사회계약론에 있어서 주권, 일반의지의 성원에 대한 절대적 지배에 대한 생각과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확실히 양자의 논리적 부정합은 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루소의 의도는 확실한 것이다. 주권은 그것이 인민의 의지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도리어 그 성원의 참다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원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여기에 루소의 진의가 있었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의지의 행사가 주권이라면 그것의 표명은 법이다. 법은 그 본질상 일반적인 것이다. 따라서 특권을 정할 수는 있어도 특정의 이름을 들고서 특권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을 정하는 권리는 인민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이 항상 교화되어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의지



의 존재를 알려주는 입법자가 입법권의 밖에 필요해진다. 그리고 어떠한 법이 적합한가는 그 인민의 역사적 성숙도, 토지의 넓이, 지질, 풍토 등을 고려해야만 비로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입법의 체계는 이리하여 나라마다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원리가 되어야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고, 어디에서도 입법의 이 목적은 관철되어야한다. 법은 또 정치법(전체의 전체에 대한 관계, 즉 주권자의 국가에 대한 관계를 규제하는 법), 민법(구성원 상호의 관계, 구성원과 국가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 형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으로서 시민의 혼이 깃든 법(습속, 관습, 여론)으로 분류된다.

제3편. 이 편은 정체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집행권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집행권은 주권자의 행위로서의 입법권에 종속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설립은 계약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계약의 목적이 아니라는 제1편의 주장으로부터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인민으로부터 집행권을 위임받은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인민의 주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의 기능은 법집행, 시민적 정치적 자유의 유지에 있는 것이고 신민과 주권자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데 지나지 않다. 집행권을 입법권에 종속시키는 이러한 생각은 루소에 있어서는 또한 혁명권으로의 원칙적 승인으로 연계되어있다.

루소는 정치체제의 전복에 대해서는 극히 신중하고 또한 경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그래도 인민주권의 이념을 관철시켜서 "인민은 좋아하면 수임자를 지정할 수가 있고, 또한 그만 두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가 있다. 루소는 민주정, 귀족정, 그리고 군주정의 3형태를 정부의 기본 형태라고 한다.

1. 민주정에 있어서는 인민전체 혹은 인민의 대다수가 정부를 위탁받게 되며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된다. 따라서 이 정체만큼 좋은 정체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민주정은, 소국가이어야 하고, 인민의 집합이 용이하고, 습속이 소박하고, 재산과 신분의 평등이 존재해야한다는 등의 실현 곤란한 조건이 전제된다. 따라서 민주정은 완전한 것이지만 인간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2. 귀족정에 있어서는 집행권이 소수의 행정관에게 위임된다. 귀족정에는 자연적인 것, 선거에 의한 것, 세습적인 것이 있으나 선거에 의한 귀족정이 가장 나은 것이다.

3. 군주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기능이 오직 한 사람의 행정관에 위임된다. 이것만큼 강력한 정부는 없으나, 또한 이것만큼 결점이 많은 정부도 없다. 특수의회는 항상 일반의지를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공의 행복은 파괴되고 국가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리하여 루소는 군주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원칙적으로 배척하고, 민주정에 있어서는 이상적인 것으로 말하면서도, 인간에 있어서는 너무나 높은 것이라고 하여 선거에 의한 귀족정을 가장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하는 것은 어떠한 정체에 있어서는 인민주권은 항상 전제로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의 분류는 어디까지나 집행권력을 구성하는 숫자상의 구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루소가 말하는 선거에 의한 귀족정이야말로 오늘날 보통의 의미로 사용되고있는 민주정체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이 편에 있어서의 인민집회와 대의제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제2편에 있어서 주권의

불가양도성과 불가분할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그것과 같은 이유에서 주권은 대표될 수 없는 것으로 된다. 주권이 대표될 수 없다는 것은 입법권을 대의제 의회에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의사(代議士)를 갖는다는 것은 시민이 이미 공적인 사항을 타인에게 맡기고 사적인 일에 전념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가가 쇠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권은 오로지 인민이 집합함으로써만 발동되는 것이다. 인민집회는 최고의 권력이고 이 집회의 개회 중에는 재판권도 집행권도 정지되고 시민은 완전히 대등, 평등의 자격으로서 거기에 참석한다. 루소는 전 인민이 함께 모이는 것의 어려움을 인지하면서도, 주권이 유지되는 것은 오로지 정기적인 인민집회에 의해서 뿐이라고 한다.

제4부. 이 편에서는 시민종교에 관한 최종 장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이 장은 이제까지 가장 많이 논의되고 문제로 되어왔던 곳이다. 루소는 종교를 인간의 종교와 시민의 종교로 나눈다. 인간의 종교는 신 전이나 의식을 갖지 않고 지고의 신에 대한 순수하게 내면적인 예배에 한정되는 것이고, 자연적이고 신적인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이다. 시민의 종교는 오직 한 나라에서만 관해지는 종교이고 법에 의해 정해진 외적인 예배를 가지고 나라에 대하여 고유한 수호신을 부여한다. 그 종교는 그 율법을 오로지 그 나라의 내부에만 펴고 그외의 나라의 사람들은 이 종교로부터 이방인으로 간주된다.

전자는 국가와는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지상에서 천상(天上)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국가에 있어서의 사회적 정신에게는 유해한 것이다. 후자는 국가를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서 사회적 결합을 매우 강화한다. 이 종교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추방되고, 이 교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체하는 자는 죽음의 벌이 가해진다. 불관용이 이 종교의 결점이지만 그것을 제하면 정치국가에 대해서는 다시없이 유익한 것이다. 확실히 루소의 전체주의적 주장이 이만큼 확실히 표명되고 있는 장소는 없는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사회계약론" 전체의 기초와의 관련이 문제가 되는 이유이다.

사회계약론 [Du Contrat social] (세계의 사상, 2002. 5. 20., 고영복, 사문연)

## <사회계약론>을 읽고 나서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태어난다고 하였다. 나는 루소가 비록 18세기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생각을 펼친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18세기에는 봉건제 같은 신분제도가 있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계급에 따라 살아야 했다. 그렇지만 루소는 그런 생각을 깨고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해서 많은 낮은 계급에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이런 사상이 결국 혁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혁명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심어준 것 같아 루소의 이런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루소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했고 일반의지에 대해서 말했다. 모든 사람의 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종종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후자는 공동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전자는 개인적인 의지가 합쳐진 사적인 이익만을 고려한다고 했다. 이렇듯 이런 상반되는 두 의지의 적절한 조화를 강조하였고 연합체가 형성되어 규모가 커짐을 경계하였다. 그 이유는 '사소한 차이들의 합이 아닌 단 하나의 차이라는 결과'였는데 말이 어려워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니, 결국 한 연합체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점에 대해 주장을 하면 그것에 대해 대항하는 소규모의 연합체들이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연합체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차이가 생기는 것과 달리 대규모 연합체에선 그에 반대하는 파와 의견차는 하나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 같았다.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면서 진지하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했던 루소의 이념이 체계적이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이런 루소의 직접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나라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율적이고 처리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한 사람이 한 지역의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의견을 낸다는 것이 한계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의 의사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들의 국민들을 위한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의 의사를 모두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많아서 한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국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리 국민이 의사결정을 통해 전국의 의사를 모두 수렴하여 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직접민주주의의 방식이 흠스나 로크에 비해서 가장 민주적이고 사회계약에도 부합하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국민의 뜻이 이뤄질 수 있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통해서 사회계약론에 대한 지식과 우리나라와 의 정부형태와 비교하며 읽어보며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2학년 유동하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처음에는 엄청 어려운 책인 거 같았는데 정치와 법 시간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해 배운 경험이 있어,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다. 이 책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내용과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 및 정부의 형태, 주권, 일반의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각종 사회 제도와 여러 가지 사회 용어들은 그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선 인간이 국가를 만들기 전의 상태가 자연상태이며, 자연상태의 인간은 각종 제도와 법을 통해 타락한다. 루소는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였고, 직접민주주의 즉 시민의 주권을 통하여 국가가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달리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전제군주제를 주장하며 국가가 생기기 전의 상태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이런 전쟁같은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군주를 세워서 군주가 자신들을 통치하도록 한다. 처음에 책을 읽을 때와 토론을 하기 전까지는 통치자가 타락하여 독재자가 되면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토론 중에 ‘만약 독재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그 무리를 나가 다른 무리(의 통치자)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선생님의 생각이 무척 놀라웠다.

사회 계약론들의 내용은 다르지만 모든 사회 계약론은 각자 또는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만드는 것이며, 자연상태와 국가가 생긴 후를 구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각 정치 참여 형태와 자연상태에 대한 내용이 다르거나 반대되는 것들도 있다. 목적이 같은 이론을 주장하는데 반대되는 요소들(성선설과 성악설, 전제군주제와 직접민주주의 등)이 그 내용을 이룬다는 것이 신기했다.

<사회계약론>을 읽고 사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일반의지, 자연상태 등)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고, 홉스와 루소의 사회계약론 외의 사회계약론에 대해서도 궁금해졌다. 그리고 홉스의 사회 계약론과 루소의 사회계약론 둘 중 무엇이 나은 지 토론을 할 때 처음에는 일반 시민도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당연히 낫다 생각하였지만,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완벽한 사람을 통치로 세우면 오히려 직접민주주의보다 나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2학년 최영현

장 자크 루소의 정치·사회학 저서 <사회계약론>을 읽고, 당대 사상가들의 사회계약론과 루소가 주장하는 사회계약론을 비교하며, 사회의 본질과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루소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고 도덕적이지만, 인구가 늘면서 점차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국가를 형성하면서 일반의지에 의해 계약자들의 권리를 통치자에게 양보하면서 국가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인물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다른 사상가와 구분되는 특징은 인간은 선한 존재이며 공공선을 위해 양도 될 수 없는 일반의지를 가진 계약의 당사자들 간의 의사 합치를 통해 계약을 맺는다는 것과, 주권이 항상 국민에게 있으며, 양도 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라는 것이다. 루소는 이 책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에 대한 열망과 사회생활의 요구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으려고 했으며, 참된 정치의 원리로 전체의사의 존중과 시민의 자결권, 그리고 주권을 제시했다. 또한 루소는 공동체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이 감수해야 할 희생을 결정지를 정당한 권리가 있음도 사회계약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정치나 정당에 관심을 갖거나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에서 일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이 책에 담겨있는 루소의 사상에 대해 배우고 탐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다른 사상가의 사회계약론 또한 읽고 싶다.

-2학년 방형석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우는 사회계약설은 로크, 홉스, 루소의 사상을 비교하며 배운다. 1학기에 루소의 교육론을 다룬 <에밀>을 읽으며 루소의 사상에 대해 조금이나마 공부한 터여서 나았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자연상태의 인간은 평화로운 상태였으나 사적소유로 인해 불평등해진 상태이고, 구성원들의 일반의지에 입각해 국민주권, 직접민주제를 주장했다. 루소가 보기에, 당시 시대는 사유재산과 지배/피지배자의 관계, 불평등을 제도화 시켜놓은 권력의 자의성 등에 의해 사회에 불평등이 만연해있었고, 루소는 원시시대 때가 더 행복했다고 생각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의지에 따라 정치해야한다고 생각했다. 17-18세기 유럽은 절대주의 시대였으며 루소는 프랑스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했지만 계몽사상의 기초가 되어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홉스의 입장과 루소의 입장으로 나눠서 누구의 사회계약론이 더 옳은가에 대해서 토론했다. 나는 홉스 측으로 뽑혀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반박해야하는 입장이었는데 당시에는 별로 반박할게 없었다. 모든 사회계약설이 그렇듯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사회계약을 통해 일반의지를 구현하는 국가가 세워질 경우 사회계약이 국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쥐어질 수 있어서 파시즘이나 나치즘 등 독재 권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사상으로 악용했다고 한다. 다른 책에는 "루소는 자유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절대군주라는 옛 독재자의 자리에 '일반의지'라는 새로운 독재자를 앉혔고, 이것 앞에서는 개인의 어떤 요구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쓰여 있다. 노벨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창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악용할 수 있다는 게 어느 사회계약설이 더 옳다고 할 수 없는 이유인 것 같다.<에밀>과 <사회계약론>을 모두 읽어봤지만 루소 같은 사상가들이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산 것 같아서 멋있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한편 교육에 관련된 책을 집필해놓고 정작 자신의 아이는 5명이나 고아원에 보내는 것을 보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이가고 존경할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다.

-2학년 최현웅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4장에 걸쳐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있다. 1장에서는 사회계약이 발생하게 된 과정에 대해 말한다. 큰 집단이 형성되며 강자와 약자가 나뉘고 각 집단 간의 갈등에 따라 보호하는 자와 보호받는 자의 구분이 생기고 사회계약이 만들어 진 것으로 보고 있다. 2장에서는 주권에 대해 말한다. 주권은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법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고 입법자와 국민에 대해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말한다. 정부의 의미, 역할 다양한 행태들, 그 다양한 행태들에 대한 분

석, 정부의 권력 남용,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한 판단 등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총체적으로 설명한다. 4부는 도시 국가의 작동에 대해서 나온다. 도시 국가가 어떠한 식으로 작동되는지 투표권, 행정관의 선거 방식, 여러 특수한 관직에 대한 설명 등을 설명했다.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몇 군데 있다. 바로 주권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지적인 부분이 다. 루소는 주권이 아무리 신성할지라도 보편적인 계약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 계약자들이 보편적인 계약으로 체결하지 못한 부분은 주권의 영향력 밖에 있기 때문에 인민들이 사전에 계약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주권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계약이 최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국가의 규모와 구조에 대해 루소가 깊게 생각해봤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의문점도 있었다. 루소의 사회계약은 시민들이 서로의 안전을 위해 서로 계약을 한 것이다. 계약 당사자인 시민들은 국가가 말하는 일반의지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그 일반의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공동선을 위해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민은 죽어야하나? 사회계약은 계약한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점과 일반의지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서로 충돌한다. 이 점에 대해선 좀 더 조사해봐야겠다.

-1학년 이준희

사회계약론은 각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사회체제가 구성 되지 않으며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합리적인 계약으로 사회의 모습을 바꾸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민주주의 혁명의 동력원이 되었으며 루소, 홉스, 로크 등이 주장한 사회계약론은 이상적 이었다. 이런 민주주의의 중요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에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들어보기만 했지 자세히는 몰랐는데 책을 읽으며 이상적인 사회와 권력의 유지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다.

루소는 원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평화롭고 갈등이 없으며 도덕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노동의 분업화가 이루어지며 사유재산의 개념으로 인해 인간들은 탐욕스럽고 경쟁적으로 변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통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된다. 그는 주권은 항상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대리인으로서 법을 집행할 뿐이다. 루소는 일반의지들이 목소리를 내서 국민들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사회를 꿈꿔왔다.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라는 광장 민주주의와 비슷한데 일반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일반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 일반 서민층은 먹고살기에 바빠서 정치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다. 또 이런 방식은 작은 사회에서는 가능하지만 국가수준의 큰 단위로 넘어가면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루소가 주장하는 사회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사상에서 발생한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는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사회계약론>에서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비판을 빼놓을 수가 없다. 나도 사유재산에 대한 토론이 가장 재미있었다. 사유재산의 인정에 대한 대립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까지도 연결 지을 수 있다. 사유재산을 100% 인정하는 것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사유재산을 모두 인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린벨트 정책이 대표적인 사

레이다. 자신이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땅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또 남의 사유지가 내가 가려는 곳의 중간지점에 있다면 허락 없이 지나갈 권리도 있다. 이처럼 사유재산의 억제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의 철저한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타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930년대 대공황 등을 거치며 자본주의도 수정자본주의로 진화하며 사유재산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가 사유재산에 대해 비판한 것은 충분히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주권양도, 성선설 등 깊이 생각해 볼 주제를 많이 던져주었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인 것만큼 나의 생각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비교하면서 읽으니 더 재미있었다. 언제나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이론 속에서이다. 나의 생각이든 루소의 생각이든지 이상적인 사회는 다 다르고 토론거리들이다. 이 책으로 토론하고 배운 것은 큰 보람을 가져다주었다.

-1학년 김현준

장 자크 루소가 쓴 <사회계약론>은 <에밀>과 동시에 출판되었다. <사회계약론>이란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일반의지를 주권의 바탕으로 둔 직접민주제의 국가를 형성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사실상 루소는 프랑스 파리의 고위 귀족층에 대한 실망감을 <사회계약론>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추측한다. 루소는 지배자의 권력으로 국민들의 복종을 원하지 않았고, 국민의 일반의지를 통하여 국민들의 자유를 존중하던 사상을 가진 사람이란 점도 <사회계약론>으로 알 수 있었다.

사실상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아마도 그 당시의 사회를 바꾸기엔 충분하진 못했던 것 같다. 당시 사회가 이것을 받아들이기엔 귀족층의 권력이 너무 크고 강했기 때문이다. 일반의지에 양도나 분할이 불가능하며 주권 또한 절대적이라는 루소의 인간주권론은 루소가 본인의 의지든 아니든 간에 국민들의 권리를 존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에밀>에서 나왔던 사상을 기반하여 이해하면 더욱 쉬워진다. <에밀>에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선하고 자유롭다고 했는데,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은 복종이 없어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했다. 문명 이전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촉구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기에, 루소는 <에밀>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사회계약론>으로 보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1학년 현승민

토론활동의 기록



학번	1605	이름	김현준	활동일자	9월 18일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사유재산은 옳은 것인가?				
진영의 입론	옳지 않다.				
주장한 내용/논리	<p>자본주의의 핵심은 사유재산의 철저한 보장이다. 말은 좋지만 문제점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분하면 못 가진 자는 가진 자의 대열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사회구조이다. 부와 권력의 대물림은 계속된다. 찬성 측 의 기본 사상은 로크나 홉스의 사상과 일치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 로크는 자연에 노동을 첨가해야 인간이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중세시대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를 보면 이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소작농이 노동을 하면 생산물은 모두 그의 것이 되어야하는데, 소작농은 자신의 생산물에 대하여 소유하지 못 하고, 지주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유지한다. 이처럼 사유재산은 애초부터 문제점이 있다.</p>				
자기평가	<p>상대측에서는 사유재산의 완전한 철폐가 우리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는데, 기초발언에서 강조했듯이, 사유재산의 일정한 평등을 말한 것이었다. 루소는 애초부터 사유재산을 철폐하자고 주장한 게 아니라 사유재산의 평등을 말한 것이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 배심원님이 아쉬웠다.</p>				
활동평가	<p>자본주의는 타락했다. 사유재산을 일부 제한하는 수정 자본주의가 대세인데 우리나라도 그렇다. 그린벨트정책이 그의 예이다. 이번 주제는 자본주의의 범위까지 볼 수 있어서 토론 주제로 하기 좋았다.</p>				

<b>학번</b>	<b>2113</b>	<b>이름</b>	<b>유동하</b>	<b>활동일자</b>	<b>9.18.</b>
<b>주제도서명</b>		<b>사회계약론</b>		<b>저자</b>	<b>장 자크 루소</b>
<b>토론주제</b>		<b>사유재산은 옳은가?</b>			
<b>진영의 입론</b>		<p>사유재산을 인정함으로써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사유재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며, 인간은 서로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 발전의 원동력과 긍정적 에너지가 모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옳다.</p>			
<b>주장한 내용/논리</b>		<p>만약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공정선이 발생할 수 있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과 대충일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공정한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동분배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대충 일하게 될 것인데 이는 그 국가의 경제, 사회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유재산을 인정해온 나라는 자본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하지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산주의로 발전한 나라들은 독재체제로 갈 위험성이 크다.</p>			
<b>자기평가</b>		<p>토론 중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전쟁, 분쟁을 통해 인간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상대측의 반박의 여지를 준 것 같아서 아쉬웠고 말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생각하면서 정리해서 신중하게 토론에 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b>활동평가</b>		<p>사유재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런 토론주제를 통해서 사유재산을 반대하는 반대편 토론을 들으면서 사유재산이 경쟁을 과도하게 유발할 수 있고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서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p>			

학번	2223	이름	최현웅	활동일자	9월 18일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사유재산은 옳은가?				
진영의 입론	사유재산은 경쟁의 원동력이고 이로 인해 사회가 발전한다.				
주장한 내용/논리	옛날부터 사유재산을 쌓기 위해 전쟁을 했는데 이는 국가가 사유재산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면 사회 발전이 저하될 것이다.				
자기평가	배심원을 맡게 되었는데 최대한 나의 의견을 배제하고 토론 내용을 들으려고 노력했다.				
활동평가	두 진영 모두 열심히 준비해 어느 한 쪽이 더 잘했다고 하기가 미안했다.				

학번	1605	이름	김현준	활동일자	9월 25일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지배층이 아닌 사람들의 일반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의한 지배는 자유로울까?				
진영의 입론	일반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의한 지배는 자유롭다.				
주장한 내용/논리	사람들의 일반의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은 위험하다. 이는 시민 개개인의 참정의식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사람들이 모두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길로 간다는 보장은 없다. 극단적인 예로 아돌프 히틀러를 들 수 있는데, 시민의 힘인 선거로 인해 당선된 히틀러가 나치독일을 만들고 세계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 사례를 본다면 사람들의 일반의지가 꼭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다른 예로 나폴레옹 3세의 사례도 있다. 또 현실은 재정적으로 여유있는 적극적 시민들의 참여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 분업수준이나 재력, 가치관 등이 모두 다른 사람들인데, 그들의 의견은 결국 사적 이익추구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는 철저히 배제된 일반의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평가	토론 쟁점이 한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토론을 해보니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고 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활동평가	루소의 사상뿐만 아니라 다른 철학자, 히틀러 등 많은 예로 퍼져가서 토론이 재미있었다.				

학번	1519	이름	이준희	활동일자	9.25.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군주, 즉 지배층이 아닌 시민들의 일반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의한 지배는 자유롭다고 말 할 수 있는가?				
진영의 입론	일반의지에 의한 법의 지배는 자유롭다				
주장한 내용/논리	원하는 사람끼리 법을 만든 것이므로 평등하다. 일반의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선하고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에 가능하다. 대표자는 일종의 “전화기”일뿐이다. 원할 때 자유롭게 말하므로 자유롭다.				
자기평가	처음으로 배심원을 했는데 중립의 입장에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둘 다 들어보고 어느 쪽의 의견이 더 타당한지 선택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활동평가	양측 모두 자료조사를 잘 해왔고 참신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 배심원의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토론이었다.				

학번	1625	이름	현승민	활동일자	9.25.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J.J. Rousseau
토론주제	군주, 즉 지배층이 아닌 시민들의 일반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의한 지배는 자유롭다고 말 할 수 있는가?				
진영의 입론	군주, 즉 지배층이 아닌 시민들의 일반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의한 지배는 자유롭다				
주장한 내용/논리	1. 군주가 지배함으로써 이미 자유롭지 못한다. 2. 군주가 지배하는 행위는 결국 일반의지를 꺾는 행위이다. 3. 법에 의한 지배는 국민들보다는 고위층을 위한 지배이다.				
자기평가	조사해온 것이 별로 없어서 생각 외로 힘들었던 토론이었다. 사실상 조사해온 것이 한 자료에서만 나온 자료라 팀원들과 겹치기도 했다.				
활동평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반박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토론의 주제와 계속 멀어져 원점을 돈 기분이다.				

학번	2223	이름	최현웅	활동일자	9월 25일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일반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의한 지배는 자유로울까?			
진영의 입론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법에 의한 지배는 자유롭다.			
주장한 내용/논리		일반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사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므로 한 사회 안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한 지배는 자유롭다.			
자기평가		주제가 어려워 조금 더 열심히 조사를 해왔어야 했는데 이해조차 잘하지 못해 아쉬웠다.			
활동평가		토론보다 선생님의 일방적인 강의처럼 진행이 되어 아쉬웠다. 다음에는 이보다 쉬운 주제로 토론을 해야할 것 같다.			

학번	1605	이름	김현준	활동일자	10월 30일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정당한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정당한가			
진영의 입론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정당하다.			
주장한 내용/논리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내면에 양심과 감성을 갖추어 도덕적이다.(성선설) 하지만 노동의 분업화 등으로 인한 불평등이 강화되고 인간은 변질되면서 갈등과 경쟁을 부추긴다. 그래서 개인의 의지 중 공동선을 지키고자하는 의지들이 모여 일반의지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주권은 항상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될 수 없다. 주권이 국민에게 속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독재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			
자기평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일반의지 표출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부족해서 아쉬웠다.			
활동평가		홉스의 사회계약설을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완벽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 대입하면 독재와 부패한 권력으로 변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측이 준비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다.			

학번	1519	이름	이준희	활동일자	10. 30.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타당한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타당한가				
진영의 입론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타당하다				
주장한 내용/논리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발생한다. 이를 막을 방법으로 군주가 있어야 한다. 군주가 있기 때문에 의견 통합이 잘 되고 어떠한 일이나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시킬 수 있다.				
자기평가	토론이 아직도 많이 미숙해 타당하고 참신한 주장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새로운 생각과 주장들을 듣고 토론이 끝난 후에도 새로운 의견을 생각해보고 토론을 다시 되새겨보는 경험을 하였다.				
활동평가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서로 비교해보고 특징을 알아가며 홉스와 루소가 살던 각각의 사회상과 둘의 사상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학번	2122	이름	최영현	활동일자	10. 30.
주제도서명	에밀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타당한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타당한가				
진영의 입론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 타당하다.				
주장한 내용/논리	홉스는 전제군주제를 주장하고 있다. 홉스의 전제군주제는 독재의 위험이 있고, 독재자가 타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공포에 의한 정치는 옳지 않다. 시민들도 정치에 참여하고 싶을 수 있는데 통치자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자유롭다.				
자기 평가	주제에서 벗어난 주장을 많이 한 것 같다. 또한 같은 말을 계속 반복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				
활동평가	전반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며 한 것 같고 그만큼 선생님의 개입이 많아져 토론보다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다.				

학번	2113	이름	유동하	활동일자	10. 30.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홉스와 루소의 사회계약론 중 어느 이론이 타당한가?				
진영의 입론	<p>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생명과 재산의 보존을 장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주권자에게 강한 힘을 부여하여 이에 복종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시대 상황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루소의 사회계약론보다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인간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까닭은 근거로 홉스의 이론이 더욱 타당하다.</p>				
주장한 내용/논리	<p>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했는데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국민들의 의사결정을 모두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비신속, 비효율적인 루소의 주장은 너무 유토피아적인 사상으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며 실제상황에 존재할 수 없었다. 루소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자유롭고 선하다고 했지만 문명과 제도가 인간을 타락시켰다고 했는데 결국 이것도 홉스의 성악설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은 점점 발전해가기 때문에 문명, 제도는 인간에게 불가피한 것들이고 악한 것들에 마주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악한본성을 가진 인간을 군주의 통치로 하는 것이 그 당시 시대상에 맞는 이론이다.</p>				
자기평가	<p>홉스의 사회계약론을 조사해보면서 상대측의 내용도 같이 조사해야 반박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홉스, 루소 모두 조사를 하면서 생각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p>				
활동평가	<p>인간의 성선설, 성악설, 홉스,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확장시켜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토론하는 등 많은 측면에서 토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p>				

학번	1625	이름	현승민	활동일자	10. 30.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J. J. Rousseau
토론주제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타당한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타당한가?				
진영의 입론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타당하다.				
주장한 내용/논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루소가 주장하는 사회계약론은 일부 고위층의 권력이 모이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자유를 위한 일반의지에 대한 것이기에 타당하다.</li> <li>2. 루소가 주장하는 사회계약론은 홉스와는 달리 국가의 기반인 국민들을 위함이다.</li> <li>3. 홉스가 주장하는 사회계약론은 기반을 다지지 않고 윗부분만 다지는 행위이다.</li> </ol>				
자기평가	<p>사실상 이번 토론은 홉스와 루소가 주장하는 사회계약론을 모두 조사하고 나올 질문들에 대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했던 토론 중 최고인 듯하다.</p>				
활동평가					

학번	2223	이름	최현웅	활동일자	10월30일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장자크 루소
토론주제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타당한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타당한가				
진영의 입론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한 군주에 의해서 정치가 실현되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타당하다.				
주장한 내용/논리	일반의지에 의해서 국가가 돌아가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대중들이 우매하다면 즉 맞다고 믿고 있는 일반의지가 사실은 틀린 것이라면 국가가 힘들어질 수 있다.				
자기평가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했었는데 조사가 덜 되어서 힘들었다.				
활동평가	조사가 덜 된 부분을 선생님께서 많이 보충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학번	1605	이름	김현준	활동일자	12월 17일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부르주아들이 일으킨 혁명은 과연 서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을까?				
진영의 입론	도움이 되지 않았다.				
주장한 내용/논리	혁명에서 얻어낸 성과들은 일반 민중들이 접하기 힘들다. 정치에 참여하려면 의식주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이다. 그래야만 자신의 삶 뿐만 아니라 정치나 자신이 겪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요구할 여유가 생긴다. 하지만 일반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자신들의 권리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결국 잘 먹고 사는 사람은 혁명의 성과가 도움 되었겠지만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이며 불평등을 느낄 만한 근거이다.				
자기평가	지금 21세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욱 더 주장하며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것에 비해서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다. 평등한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는 일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활동평가	zoom으로 처음 토론활동을 해서 어색하기도 했지만 상대팀과의 토론이 재미있었다. 토론주제의 '서민'에 대한 용어정리가 명확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학번	1625	이름	현승민	활동일자	12. 17.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J.J. Rousseau
토론주제	부르주아들이 일으킨 혁명이 과연 서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는가?				
진영의 입론	서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주장한 내용/논리	1. 부르주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혁명을 일으켰다. 2. 부르주아는 사실상 혁명 후에 전의 고위 귀족처럼 타락하였다. 3. 부르주아는 사실상 서민들과는 다르다는 의식을 가지기도 하였다.				
자기평가	첫 온라인 토론인지라 준비해도 힘든 토론인데 많이 당혹스러웠다. 물론 조사해 온 자료들은 많았지만 다 쓰지 못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활동평가	원활하지 않은 토론에 위축되는 감이 있었으며, 준비한 자료를 거의 대부분 이상을 쓰지 못하여 사실상 최악의 토론이었다.				

학번	2122	이름	최영현	활동일자	12. 17.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부르주아들이 일으킨 혁명이 과연 서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는가?				
진영의 입론	부르주아들이 일으킨 혁명이 서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다				
주장한 내용/논리	부르주아들이 일으킨 혁명은 서민들이 참정권을 얻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제 3신분은 무거운 세금을 내면서 특혜를 누리지 못하였고 제 1신분, 제 2신분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각종 특혜를 누렸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자기평가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토론을 하면서 각종 자료를 찾아본 것이 아쉬웠다.				
활동평가	너무 토론시간이 부족하였고 zoom이 너무 끊기고 처음해보는 비대면 토론이라 많이 집중하지 못한 것 같다. 또 중간 중간에 이탈자가 많아 아쉬웠다.				

학번	2113	이름	유동하	활동일자	12. 17.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부르주아들이 일으킨 혁명이 과연 서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는가?			
진영의 입론		<p>부르주아들이 봉건제의 모순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으킨 혁명은 전국민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확립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결국 유럽사회에 자유와 평등을 전파하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부르주아들이 일으킨 혁명은 서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p>			
주장한 내용/논리		<p>부르주아 혁명은 서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먼저 부르주아 혁명자체의 목적이 봉건제의 모순 구조를 혁파하기 위함인데 프랑스에서는 당시 제1,2,3신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1,2신분은 2퍼센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지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98퍼센트인 3신분은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1,2신분은 세금까지 면제였다. 결국 제3신분은 적은 토지에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감과 박탈감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따라서 부르주아들이 이런 혁명을 통해 이러한 봉건제를 없애서 인간을 신분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평민들에게 큰 위로와 다짐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이것을 기점으로 다른 차별받는 이들에게까지 희망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르주아 혁명이 완전한 평등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점점 참정권같은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결국 나중에 보통선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p>			
자기평가		<p>과거의 신분제의 굴레 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 평등을 이루려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나도 힘든 상황 속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활동평가		<p>코로나바이러스로 처음으로 줌으로 토론을 해봤는데 불편하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처음 해봤기 때문에 새롭고 흥미로웠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활동 할 수 있다는 경험을 쌓아 좋았다.</p>			

학번	1605	이름	김현준	활동일자	12월 21일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국가가 생기기 전의 인간들은 어떤 상태인가				
진영의 입론	국가가 생기기 전 자연상태의 인간은 악하다				
주장한 내용/논리	홉스는 인간들은 본래부터 악하다고 주장한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대규모 학살이 일어난다. 우리 주위에서는 따돌림, 폭력, 등이 일어난다. 인터넷 상에서는 비대면이므로 비방, 욕설 등이 오고간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받는 것이다. 침팬지의 유전자는 인간과 99% 동일하고 그들은 외부인이든 자신의 종족이든지 매우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이것을 보면 인간은 악하다.				
자기평가	인간이 악한 것의 사례들 밖에 주장하지 못한 것 같았다. 본질적인 이유를 찾지 못해서 아쉬웠다.				
활동평가	아프리카의 한 원시부족이 실수로 침범한 여행객 두 명을 죽였다는 사례를 보았다. 인간은 원시상태에서도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였고 많은 나쁜 사례들을 토론을 준비하면서 보아서 인간의 비열한 면모를 잘 탐구했다.				

학번	1625	이름	현승민	활동일자	12월 21일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J.J. Rousseau
토론주제	국가가 생기기 전의 인간들은 어떤 상태인가?				
진영의 입론	배심원으로 활동함.				
주장한 내용/논리					
자기평가	두 번째 온라인 토론이어서 첫 번째보다 좀 더 능숙해진 상태로 세 부분으로 나뉜 토론을 중간에서 바라보는 역할이었다. 본인의 의견을 물었을 때 충분히 답변하지 못해 아쉽다.				
활동평가	사실상 어느 의견이 가장 타당하냐는 선생님의 의견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울 뿐이다.				

학번	2113	이름	유동하	활동일자	12월 21일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국가가 생기기 전의 인간들은 어떤 상태인가?				
진영의 입론	<p>국가가 생기기 전의 인간들은 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과거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인간들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남의 것을 훔치거나 약탈하는 행위가 있었고 심지어 부족들 사이에 전쟁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점을 보아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끊임 없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노력하는 것을 보아 인간은 악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악한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생명이 언제 없어질지 몰라 국가를 통해 보호받으려는 심리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p>				
주장한 내용/논리	<p>인간은 결국 국가상태 이전이나 이후나 모두 악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은 결국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만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음식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 음식을 지키고 있다면 음식을 그 사람이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때리거나 죽여서라도 그 음식을 통해 자신의 배고픔을 충족시킬 것이다. 결국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제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위협에 처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처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악하다고 해서 절대 악한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건 아니다.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 상대측이 예를 든 남을 위해 대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마음을 교육이나 처한 상황을 통해 선해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p>				
자기평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 자신에게 칭찬하고 싶다.				
활동평가	<p>성선설, 성악설, 성무성악설 3개의 측면에서 토론을 해봤는데 보통 2가지의 측면에서 토론하던 것과 달라서 더욱 많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p>				

학번	2206	이름	방형석	활동일자	12.21.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인간들은 어떤 상태인가?				
진영의 입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상태이다.				
주장한 내용/논리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을 선하다고 주장하였고, 인간의 발달은 태어나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숙한 인간이 된다. 또한 선악은 인간의 고유 속성이 아닌 인간 자신의 환경에 따른 선택과 판단에 달려있다. 따라서 인간은 출생 시 인성이 형성되기 전이고 환경의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만 갖추고 있다.				
자기평가	zoom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하다 보니 조금 집중이 되지 않았고, 의견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활동평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란 책을 읽고 토론활동을 하면서, 저자의 사상과 그 사상에 기초한 생각들을 알게 되고, 다른 사상가들의 사회계약론과 비교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번	2223	이름	최현웅	활동일자	12월 21일
주제도서명	사회계약론			저자	장 자크 루소
토론주제	국가가 생기기 전의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				
진영의 입론	국가가 생기기 전의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이므로 교육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주장한 내용/논리	인간의 본성에 관한 여러 가지 설들의 공통된 주장은 자라면서 교육을 통해 본성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므로 핵심은 “인간이 태어났을 때 어떠한 상태인가”이다. 인간의 욕구를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자기평가	마지막 토론이고 주제도 어려운 주제가 아니었던 만큼 지금까지 중 가장 수월한 토론이었던 것 같다. 자료 조사도 충실했고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활동평가	토론에 참여한 6명 모두 다 잘한 것 같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 부록

## 인문학과 글쓰기 강좌

좋은 글은 머리와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치에 대한 안목과 판단이 전제된 좋은 삶의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글과 작가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깨닫고자 합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을 지리, 역사, 문학, 철학 등 각 분야에서 글쓰기의 모범이 되는 고전 텍스트의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해 전문 강사의 지도로 함께 읽고 생각하며 그 결과를 에세이로 산출한 후 피드백을 받습니다.

사회과학독서토론(푸블리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균형 잡힌 말하기와 글쓰기 역량의 함양을 위해 한 학기에 4회씩 총 8회 인문학과 글쓰기 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했습니다.

### 2017년 인문 고전에서 배우는 글쓰기 기술

올바른 글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문 고전들을 읽으며 글쓰기의 기본 소양을 쌓고, 진상을 파악하고 진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표현 기술을 익힌다.

- 제1강: 오리엔테이션 - 좋은 삶, 좋은 글, 가치
- 제2강: 관찰과 기록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탈리아 기행>
- 제3강: 진상과 진실 -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 제4강: 공감과 이해 -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 제5강: 이론과 실천 - 프리드리히 엥겔스,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
- 제6강: 언어와 사고 - 조지 오웰, <정치와 영어>
- 제7강: 개념과 비유 - 플라톤, <국가> 제7권
- 제8강: 기호와 상징 - 에른스트 카시러, <인간이란 무엇인가>

### 2018년 역사와 지리, 그리고 인간

글쓰기는 특수한 시간과 공간의 문학적 산물이다. 글쓰기의 목적은 진실 전달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우리는 진상 파악에 진력한다. 시대의 맥락과 지리적 맥락을 파악하는 일은 진상에 접근하려는 좋은 방법이다. 시공간 맥락을 잘 보여 주는 훌륭한 작품을 읽으며 우리는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서도 본받아야 할 여러 글쓰기 기술을 익힐 수 있다.

- 제1강: 역사를 기술하다\_ 역사를 기술하는 관점과 방법을 개괄적으로 검토함. -존 H. 아널드, <역사>
- 제2강: 역사를 기술하다\_ 여러 시대를 관통하는 통사적 역사 기술방식을 검토함.  
-에드워드 맥넬 번즈 (등), <서양 문명의 역사> 하권, 16장~18장
- 제3강: 역사를 기술하다\_ 특정 국가의 관점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을 검토함.  
-앨런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제1권
- 제4강: 역사를 기술하다\_ 주요 역사적 사건의 배경이 된 조약이나 선언문의 원문을 검토함.  
-<사료로 읽는 미국사>
- 제5강: 지리를 기술하다\_ 지리를 공부하는 의의에 관해 검토함. -팀 마샬, <지리의 힘>
- 제6강: 지리를 기술하다\_ 특정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 삶에 미친 영향을 검토함.  
-페르낭 브로델, <지중해의 기억>
- 제7강: 지리를 기술하다\_ 다른 지역의 문화가 융합하고 발전하는 사례를 검토함.  
-발레리 한센, <실크로드-7개의 도시>
- 제8강: 지리를 기술하다\_ 역사학자가 통찰한 지리적, 역사적 맥락을 검토함. -칼 슈미트, <땅과 바다>



## 2019년 <서유견문>과 글쓰기

개화사상가이자 교육자이자 번역자인 유길준의 대표적 저술인 <서유견문>을 읽으며,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해 검토하고, 어떤 개념과 용어로 그 사상을 표현하는지 배우고자 한다. 아울러, 국한문 혼용체를 읽어나가면서 한국어 글쓰기에 사용되는 한자 개념어들에 친숙해지고자 한다.

제1강: <서유견문> 읽기\_유길준의 사상에 관하여

제2강: <서유견문> 읽기\_<서유견문>의 의의와 구성

-유길준이나 <서유견문>과 관련한 에세이 주제 구상, 개요 작성

제3강: 글쓰기 실습(1)\_구상과 개요

-개요 짜는 법 강의 및 과제물 검토

제4강: <서유견문> 본문 읽기(1)

제5강: <서유견문> 본문 읽기(2)

-유길준이나 <서유견문>에 관한 자료를 찾아 인용하거나 요약하기

제6강: 글쓰기 실습(2)\_인용과 요약

-인용 방법 강의 및 과제물 검토

제7강: <서유견문> 본문 읽기(3)

-유길준이나 <서유견문>에 관한 에세이 초안 작성

제8강: 글쓰기 실습(3): 에세이 쓰기

## 2020년 고교생활에 필요한 글쓰기 기본기

고등학생으로서 갖춰야할 “글쓰기의 기본기”를 동서고금의 핵심적인 텍스트들을 통해 배우고 고등학교 학업 중에 자주 쓰는 장르(독후감, 보고서, 자기소개서)의 글쓰기를 연습합니다.

1학기엔 자기소개서, 보고서, 독서감상문 쓰는 법을 배우고 실습하며, 자기소개서는 개별적으로, 보고서와 독서감상문은 강의 중에 선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2학기엔 짧지만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문 텍스트를 함께 읽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기말에 에세이 한 편을 써서 제출합니다. 단, 글쓰기 강좌를 강화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1강: 자기소개서(1) 기초/좋은 글을 쓰는 힘
- 제2강: 독후감(독서감상문)/과제글(1) 첨삭지도
- 제3강: 1강+2강 복습/과제글(2) 첨삭지도
- 제4강: 자기소개서(2) 심화/2차 과제글(1)+(2) 첨삭지도
- 제5강: 자기소개서(3) 3차 과제글(1)+(2) 첨삭지도/인문사상의 흐름
- 제6강: 복습/자기소개서의 좋은 사례/어려운 인문학책 읽은 법
- 제7강: 자기소개서(4) 4차 과제(자기소개서 완성하기) 첨삭지도/총정리

**강사 이강룡:** EBS 논술·글쓰기 강사로 활동했고, 공공도서관과 학교에서 글쓰기와 인문학 강좌를 진행한 다. 『글쓰기 기본기』(창비)·『디지털 시대의 글쓰기』(살림)·『번역자를 위한 우리말 공부』(유유)·『하룻밤에 읽는 서양사』(페이퍼로드) 등을 지었고, 『퍼펙트 레드』(푸른숲) 등 영어권 외서를 몇 권 번역했으며, 여러 매체에 읽기와 쓰기에 관한 글을 기고한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글이 실려 있다.

**홈페이지:** [readme.kr](http://readme.kr) **이메일:** [readme@naver.com](mailto:readme@naver.com)

## 2020 푸블리카

1519 이준희

1605 김현준

1625 현승민

2113 유동하

2122 최영현

2206 방형석

2223 최현웅

3119 장상민

3217 조성인

3218 조원일

3221 최보승

3222 최승훈

3303 김정현

3307 박재윤

3308 박재형

3324 형관우

지도교사: 강민식

송다슬(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강의정(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